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1월 31일(주일) 제1085호



사진은 지난해 목회사관학교

내일부터 2016 목회사관학교

‘예수를 위한 바보들’ ... 온누리교회 목회자 330명 한 자리에

2016 목회사관학교가 내일부터 시작된다. ‘예수를 위한 바보들’을 주제로 열리는 목회사관학교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330명이 참석한다.

2016 목회사관학교의 포문은 내일 열리는 목회자 일일 공개세미나 ‘세상을 놀라게 하라’가 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된다. 저명한 선교학자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가 ‘선교적 크리스천의 5가지 습관’을 주제로 강의한다. 목회자 일일 공개세미나 ‘세상을 놀라게

하라’에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생들도 참석한다.

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시간이 펼쳐진다. 그룹워크숍, 조별 콘서트, 조별큐티나눔, 아웃팅, 예배 등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동역의 기쁨을 만끽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재훈 담임목사,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 안성호 교수(네덜란드 틴데일신학대학원),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대학원)가 강의한다.

해외비전교회 목회자 위한 Acts29 비전 컨퍼런스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열렸다.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을 주제로 열린 Acts29 비전 컨퍼런스에는 미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아부다비, 베트남 등 30개 해외비전교회 전임목회자 28명이 참석했다.

Acts29 비전 컨퍼런스에서는 지역별 회의, 고건 장로와 넬슨제닝스 선교사의 강의, G&M

글로벌문화재단 문애란 대표의 독서 강연, 찬양집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정장철 목사는 “외국에 있으면 새로운 것을 공급받기 어려운데 Acts29 비전컨퍼런스를 통해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해외비전교회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아치오 온누리교회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고 준비해준 덕분에 편안하고, 따뜻하게 재충전할 수 있었다”며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찬양팀원 모집

찬양사역팀, 챔버, 예배인도팀

예배사역본부가 찬양팀원을 모집한다. 찬양사역팀, 챔버, 예배인도팀에서 동역할 성도를 찾고 있다. <모집공고 13번>

찬양팀원 모집행사는 ‘당신도 온누리에 울려 퍼질 찬양의 음표가 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온누리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이 대상이다. 서빙고 1~6부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양재1~7부 주일

예배, 도곡교육관 주일예배, 부천 1~6부 주일예배, 수원 1~4부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워십댄스팀, 여성중창팀, 남양주 1~2부 주일예배, 예배인도팀, 평택 1~3부 주일예배, 화요여성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강동 1~3부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일오전예배, 수요일저녁예배, 대전 1~3부 주일예배, 예배진행팀, 양지 1~2부 주일예배에서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2016년 1차 선교사 파송식

6개국, 선교사 10명 파송

2016년 1차 선교사 파송식이 오늘(31일) 서빙고 1부와 양재 3부 예배에서 거행된다.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6개국에

선교사 10명을 파송한다.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누계(1월 31일 기준)는 1,841명이다. 현재 73개국에서 선교사 879명이 사역하고 있다. 2016년 1차 파송 선교사와 파송국가는 아래의 표와 같다. 문의: 02-3215-3208

2016 1차 선교사 파송

선교사명	파송국가	선교사명	파송국가
이혜성	동아시아 B국	박하양	중앙아시아 B국
김은혜	동아시아 B국	아길라	잠비아
홍요한	아프리카 D국	프리실라	잠비아
에스더 주성열	아프리카 D국	아비가일 그레이스	이탈리아 르완다
	중앙아시아 B국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 이병현, 김현기 선교사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이병현 선교사는 올해 90세고, 김현기 선교사는 87세다. 그들의 선교열정이 대단하다. 젊은 사람들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67세에 중국 선교사로 부름 받고, 81세에 내몽고로 사역지를 옮겼다. 84세에 은퇴하고 90세인 지금은 중보기도 선교사로 살고 있다. 이병현, 김현기 선교사의 인생 3부작 이야기다.

“선교 열정은 늙지 않는다!”

이병현·김현기 선교사 부부의 ‘인생 3부작’

그의 인생 전반부는 남달랐다. 중국 천진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을 보냈다. 일본을 거쳐 한국에 왔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터에서 군 생활을 했다. 군복무를 마치고서는 말레이시아로 떠났다. 말림에서 벌목하는 회사에 입사했다. 5년 뒤에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 사업을 했다.

중년, 잘나가던 사업가에서 빈털터리로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중동에서 사업을 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영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면서 동양과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익혔다. 영국에 정착할 무렵 인생역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불교신자이던 이병현, 김현기 선교사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에 지쳐 교회를 찾은 것. 아내를 교회에 데려다 주고 나오려는데 비가 내렸다. 교회문턱도 밟지 않던 그가 비를 피해 교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서 하용조 목사를 만났다. 하 목사와 잠깐 대화를 했는데 마음에 쏙임이 있었다. 사업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면서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 일을 계기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난 그들 부부는 모든 사업을 접고 빈털터리 신세로 귀국했다.

67세, 중국 선교사로 부름 받다

한국에 오자마자 찾은 곳이 온누리교회다. 온누리교회와 행보를 함께했다. 하 목사는 선교의 ‘선’자도 모르던 그들에게 해외선교 사역을 맡겼다. 협력교회를 통해 선교사 파송을 돕고, 후원 및 기도편지를 관리하는 사역이었다. 그렇게 조금씩 선교를 배웠다. ‘기도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

어느 날, 중국에서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흑룡강성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도서가 필요합니다.”

이병현 선교사는 그 편지를 받고 곧장 중국 흑룡강성으로 향했다. 책 한 보따리를 메고 갔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만 들고 찾아갔기에 교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한밤중 밀밭을 7시간이나 걷고 또 걸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게 권능을 주십시오.” 어둑어둑한 새벽녘 희미한 불이 켜진 집 하나를 발견했다. 문을 두드렸다. 집주인에게 편지봉투를 보여주며 “이 편지를 보낸 분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하셨습니다!”라면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이병현 선교사가 찾



이병현, 김현기 선교사가 활짝 웃고있다.

던 바로 그 교회였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된 것 같아 정말 기뻐했다. 중국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때 그의 나이 67세였다.

고향 천진에 화평국제학교를 세우다

선교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다. 이병현 선교사는 부름 받은 그날부터 중국 곳곳을 정탐하러 다녔다. 연길, 훈춘, 왕춘, 심양, 천진까지 여러 곳을 다녔다. 고향 천진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그는 중국 천진에서 출생했기에 옛 생각이 사무졌다. “바로 이곳이 나의 선교지구나!”

1995년 4월, 짐을 싸서 아내와 함께 천진으로 향했다. 그렇게 중국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천진 공안(경찰)이 이병현 선교사에게 이곳에 온 목적을 물었다. 이 선교사가 대답했다.

“내가 천진에서 20년을 살다가 5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분위기가 금세 전환됐다. 호 사상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이 이 선교사를 “라오텐젠(老天津)천진의 어른신이 돌아 왔다”라 부르며 환영하고, 대접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중국 천진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화평국제학교’를 시작했다. 한편, 탄광 지역과 조선족이 모이는 단결촌(團結村)을 찾아가 말씀을 나누었다. 석가장(石家莊)성경학교에서는 한

국교사와 중국교사가 성가연습도 하고, 가정교회 위탁도 받게 됐다. 그곳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진 곳에서 문화교류의 장(場)을 만들었다. 하남성(河南省)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가르쳤고, 복음 전하는 제자로 훈련하기도 했다. 이 선교사는 중국인들이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도 금지했다. 대신 자필로 카드를 써서 고마움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나 공안 당국으로부터 정적함을 인정받을 정도였다. 공안 당국으로부터 장기 체류증을 통지 받았다. 반면, 화평국제학교 학생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친절, 예의, 정직을 중시한 효과가 컸다. 화평국제학교 출신 학생들 중에 목사와 선교사, NGO단체 종사자 등이 배출되었다.

81세에는 내몽고로 사역지를 옮겼다. 고령의 나이도, 고향을 떠나야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몽고에서의 추억도 특별했다. 아웃리치팀과 함께 400명이 모여 비빔밥을 먹고, 강강술래를 돌았다. 화합의 장이 됐다.

“Do You Love Jesus?” 모인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Yes, I love Jesus, I love Father!”를 외쳤다. 선교의 열매를 맛보게 했다.

중보기도 선교사가 되다

이병현 선교사 부부는 2011년 20여 년의 선

교사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20여 년 동안 그들은 중국 천진과 내몽고 등지를 다니며 참 열심히 사역했다. 미전도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의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전도했다.

2011년 84세가 됐다. 언제 나이가 그렇게 많아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쉽게 나이 달려왔다. 은퇴했다고 선교를 멈춘 것이 아니다. 은퇴한 이후 두, 세 차례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또한 선교사와 선교지에 남겨 둔 영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있다. 은퇴 이후 중보기도 선교사가 되었다.

새벽예배와 중보기도모임에서 파송 선교사를 위해 계속 중보기도하고 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중보기도모임을 하러올 때마다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차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가 차세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중국 천진 화평국제학교에서의 놀라운 성과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다.

“앞으로 온누리교회 30년은 차세대와 청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차세대가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30년 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어서 일어나거라

사도행전 12:1~12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만 바라고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자 안디옥교회가 구제헌금을 모아 보냈던 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그 무렵 헤롯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1~3절).

헤롯왕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종교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교회지도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사람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너무나 큰 손실이고, 큰 아픔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시점에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양육하고, 사랑한 제자가 순교할 줄 모르셨을까요. 저는 야고보의 순교가 기독교 정체성과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눠 주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가 이 세상에 고통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이 세상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체되어 있을 때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깨어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부흥한 안디옥교회가 안주할 때 야고보의 순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박해와 고난과 환란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열두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곁으로 가는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잃었던 열심과 신앙의 긴장을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스테반의 순교와 야고보의 순교는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 기도하는 교회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네 명씩 한 조를 지어서 네 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유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4~6절).

헤롯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박수와 인기, 음성에 더 집중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기와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렸습니다. 그리고 네 명이 한 조가 되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두 명은 베드로의 양 옆에, 두 명은 경비병들과 함께 입구를 지켰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갇혔을 때 대 표단을 만들어 헤롯과 막후교섭을 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는 행동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위험과 고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천사의 지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찢어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여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7~9절).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재판을 받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출시켰습니다. 천사가 “어서 일어나거라” 하니 손목에 매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고, 겉옷도 입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빨리 나가면 좋은데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허리띠를 매고, 신발의 끈을 묶고, 겉옷을 챙겨서 천사를 따라가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쇠사슬을 풀어주고, 감옥 문을 열리게 해주고,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의 눈을 가리는 일은 하나님

이 하실 일입니다. 베드로의 할 일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나를 구해주셨다”

네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아귀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10~12절).

베드로가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 천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천사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한 거리에 있을 때 천사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만 바라고 멈추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어서 일어나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계십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베드로에게 들었던 천사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이단 바로 알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기

1. 바로 알기 이단을 분별하자

중년 여성이 자신의 딸이 온누리교회 성도인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본지에 전화를 했다. 딸이 온누리교회에 다닌다고 거짓말하고 이단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확인 결과 이단에 빠져 있었다. 대학청년부 소속 한 자매는 교회 밖에서 성경공부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말씀을 어쩔 그렇게 명쾌하게 해석하는지 그 제안이 달콤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다. “이게 아닌데...”라고 느꼈을 땐 이미 이단의 늪에 빠져 있었다. 이단문제가 심각하다.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도 있었다. 1987년 8월, 주식회사 오대양 구내식당 천장에서 시체 32구가 발견됐다. 당시 오대양 대표 박순자는 사이비 교주였다. JMS교주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혐의로 복역 중이다. 아직도 여신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단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붕괴되고 있다. 일반인들도 현혹되고 있다.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이단 전문가 탁지원 소장이 글을 보내왔다.



탁지원 소장
월간 현대종교 대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이단(異端)은 성경과 정통교리를 변질시키거나 다른 교리를 주장함으로 교회의 하나 됨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미혹하는 사람과 집단을 말한다. 이단은 머리과 몸은 같으나 끝이 다른 게 특징이다. 성경의 근본 원리를 왜곡한다. 성경에는 이단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고후 11:4),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딤후 4:1),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교주 자신의 사욕을 좇고(딤후 4:3-4), 교주 자신을 메시아, 재림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마 24:5),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거나 거부한다(벧후 2:1, 요일 4:2-3). 또한 이적기사를 행하여 택한 백성도 미혹하며(마 24:24), 절박한 시한부 심판설로 위기의식을 조장해 공포심을 조장하고(마 24:36), 그리스도의 교훈을 반대하고(갈 1:7-8), 타교인을 유혹(요 10:10, 마 7:15-16)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이단과 이단단체들이 있다. 대표적인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를 비롯해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기쁜소식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 증인회),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물몬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여호와와의증인 등이 있다. 이밖에도 대순

진리회, 영생교, 말씀보존학회, 성락교회(기독교베리아교회연합), 레마성서연구원, 큰믿음교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교주와 신도들에게 안정맞춤인 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강조하거나,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진리를 100% 완벽하게 통달하고자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다. 신앙고백을 거부하거나, 교주를 신격화시키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시한부 심판설을 주장한다던가, 그릇된 신비주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경제 문제만 관심이 있고 신도들로부터 갖은 방법으로 금전을 수탈한다. 비윤리, 반도덕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상천국의 현실화를 주장하거나 교리의 혼합설을 주장(유물선합일주의 등)한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현대종교’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많게는 매달 1천여 통 가까이 되는 상담(예보 포함)을 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은 상담이 이루어진 이단단체를 정리해보니 예상대로 신천지였다. 그 다음이 다락방, 하나님의교회 등 총 12개 단체였다. 이들 대부분이 기성교회 성도들 내지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단 종교의 전략과 전술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자신들의 정체(이름)를 교묘하게 숨기며 포교하는 것이다. 요즘은 그 전략들이 진화되거나 변형되어 정체를 도통 알 길이 없는 경우도 많다. 검증되지 않은 곳이나 사람들이 종교 문제로 접근해 올 때는 정확한 교단의 이름(OO교단 OO측까지)과 교회 이름, 대표자 등의 배경을 확인해봐야 한다. 그들의 주보, 전단지, 웹사이트 등을 살펴본 이후 관계해야 한다.

여전히 심각한 이단은 역시 신천지와 하나님의교회다. 하나님의교회는 대부분 가가호호 방문과 길거리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선호한

다. ‘설문조사를 하자’거나 ‘UCC를 보자’는 식으로 접근할 때 관계 자체를 거절하고, 절대로 연락처나 이름 등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신천지는 독특한 포교 방식으로 미혹한다(교회 안에 들어와 3년에서 10년 정도까지 성도로 활동하며 사람들을 포교하기도 함). 전략이 늘 바뀌고 있어 교회가 수시로 포교방법을 체크해 성도들에게 주지시켜줘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가까운 누구와도 검증되지 않은 신앙적 교제와 성경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결단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이단들의 공격 앞에 대응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대학, 군대 등 청년들이 표적

청년들이 속한 곳은 이단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조직을 지키고, 넓히기 위해 청년들을 필요로 한다. 대학가가 가장 위험하다. JMS를 필두로 신천지, 구원파(특히 박옥수파, IYF) 등이 문화동아리나 자원봉사 동아리, 심지어 선교단체 등으로 둔갑해 활동하고 있다. 때로는 총동아리 연합회 등 학교 주요 단체를 장악해 포교하기도 한다. IYF라는 단체는 대부분 대학교 중고등학교에 포진해 값싸게 해외에 나가 봉사활동 할 수 있다고 현혹한다. 해외봉사단이나 ‘중고생 및 대학생 영어말하기 대회’ 등을 선전해 포교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단들의 활동은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신학생 하나 미혹하는 것을 일당백이라고 여기고 있다. 기성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군대 안의 이단 문제도 심각하다. 복무연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폐쇄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그들이 군대를 황금어장이라 믿고 있는 이유다. 그들만의 선교마인드로 입대하고 있다. 이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병들은 선임병이 조금만 잘해주도 마음

의 문을 활짝 열게 되니 그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은 포교방법이 없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순결과 성교육 단체로 위장해 자신들의 교리를 은밀히 전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많은 학교에서 진행되어 왔다. 아예 이단에 속한 청년들을 사범대학에 진학시켜 교사로 만들어 합법적 공간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친분관계로 포교하는 경우도 상당히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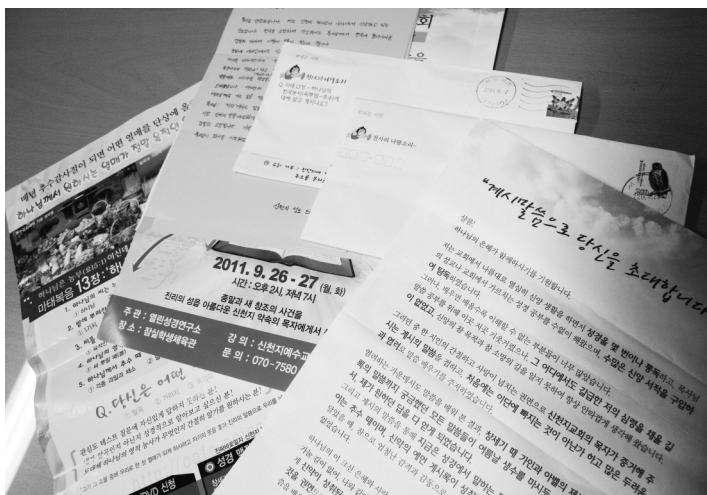
주위 사람들을 함부로 의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종교의 배경 등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단들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설마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요즘 이단들은 대학을 만드는 수준이다. 웬만큼 대처해서는 쉽지 않다. 대학 신입생들은 물론 중고등부에서부터 확실한 대처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고3에서 대학가는 예비 청년들이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 수능 이후 각 교회들마다 이단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20년 가까이 죽어라 공부해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시기에 이단에 빠져 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한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대학의 동아리도 검증되지 않은 곳은 금물이다. 학교 앞에서 설문조사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배경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에는 함부로 전화변호나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면 안 된다.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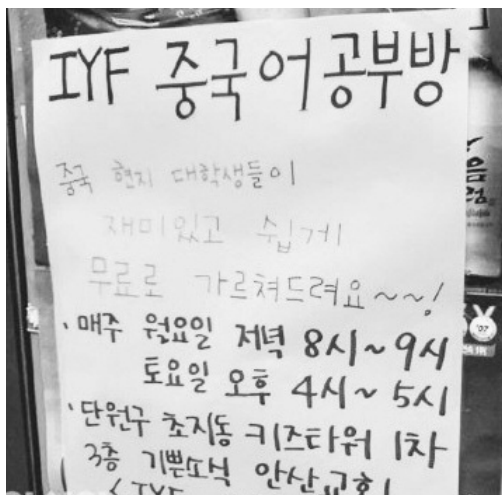
이단 포교는 어린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단 대처교육은 어린이들에게도 꼭 필요하다. 요즘 이단들은 어린이집 등을 만들어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캠프를 통해 관계를 쌓기도 한다. 요즘 교육 트렌드 중 하나인 대안학교에 보내고는 싶지만 여러 상황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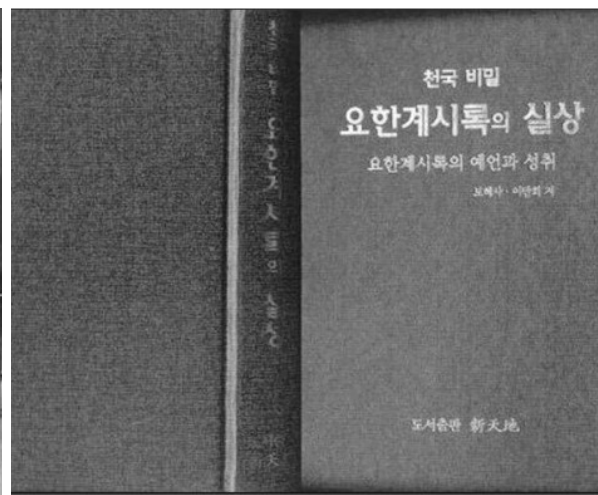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붕괴되고, 일반인도 현혹 ... 경각심 가져야
대처교육 실시하고, 그 누구와도 검증되지 않은 성경공부 절대금물



이단 전단지



구원파 대학교 동아리 홍보



신천지 이만희 저서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싼 가격을 제시하며 접근하기도 한다. 초등학교 앞에서 학용품과 선물 공세 등을 통해 접근하기도 하는데 심각한 수준이다.

이단들의 미혹은 요람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교회 세계선교협회(하나님의교회)가 운영하는 섯별선교원은 조기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과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다. 섯별선교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노래는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 없는 어머니도 있죠, 안!상!흥!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나는 알아요’라는 노래는 “나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안상흥님 나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 어머니, 안상흥님 어머니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대요”라는 내용이다. 애석하게도 학부모들이 교육기관의 건전성보다 교육시설과 효과만을 기준으로 자녀들의 조기교육 환경을 결정한다. 이단들이 내세운 최상의 조기교육 환경에 학부모들의 눈이 멀어선 안 된다.

특성과 교육으로 유혹하기도 한다. 통일교는 선화예술중고등학교와 청심국제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선화예술중고등학교의 공연단은 통일교를 알리는 최고의 예술단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심국제중고등학교는 수많은 인재들이 몰리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몰리는데,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다. 국사와 국어를 제외한 수업들이 영어로 진행될 만큼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이곳에 보낸 크리스천 학부모들은 종교와 교육은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자녀들이 통일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박옥수의 IYF도 국내 각지에서 ‘링컨하우스스쿨’이라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미혹하고 있다. 영어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경

우도 많다. 이단들이 운영하는 영어학원(SDA 영어학원)이 있고, 둘씩 짝지어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접근하는 몰몬교 교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단이 직접 운영하는 학원은 아니지만 대표자나 간부가 이단에 속한 경우도 있는데 간접적인 영향력이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이단에 속해있는 경우도 문제다. 이단들이 소속 연예인을 이용해 포교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심으로 자녀들과 제자들을 사랑한다면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낯선 사람 조심하고, 차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영적인 낯선 사람과 영적인 차 조심도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어린이들도 이단 예방교육이 가능하다. 민감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다면 평생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이 아이들에게 이단교육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 교사와 어른들의 사고가 문제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단들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절대로 가만 두지 않는다.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단문제를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생기면 비로소 이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싸우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단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된 것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는 이단의 출현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우리가 그 자연스러운 현상에 버거워하고 힘들어해서야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는 싸움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이 성경에 잘 나와 있다. 그 본질적 말씀을 토대로 각 교단의 이단들에 관한 연구물과 이단 연구소

들의 정보들을 통해 분명한 ‘지피지기’가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명칭과 더불어 각 단체의 핵심교리를 몇 가지만이라도 파악하고, 날마다 바뀌는 전략들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한다.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한다든지,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있다며 직통 계시 등을 주장하고, 성경의 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때, 정통교회를 강도 있게 비난하며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이단성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성경공부나 기도원, 집회 등이 있거나 신앙 좋은 선교사나 교역자를 만나게 해준다 하더라도, 섬기는 교회나 교역자들이 모르게나 검증되지 않은 곳이라면 절대로 관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단들이 만든 영적 불량식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이 만든 식품을 사서 먹음으로써 그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역 이단들의 위치 파악과 더불어 주보에 이단들의 정보를 매주 담아 나누는 것, 이단관련 서적과 DVD 등을 비치하고 매년 한차례 이상 이단 세미나를 열고, 이단 대책팀을 만들어 사역자들과 채널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단문제에는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지만, 회복에 대해서는 아는 이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교단과 교회에서 약간의 물질과 시간을 들인다면 이단에 빠진 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이 가능하다. 교회에서도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부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가르치기에 힘쓰길 바란다. 한국 교회가 대형화되고 물량주의로 타락해가는 작금의 상황에 이단은 더욱 더 강한 미혹의 손길을 뻗치며 능란한 전략전술, 위장된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단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는 늘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이 되어 대처해 나가야 한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듯 위기를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단문제는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나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관심을 가져선 안 된다. 최근 이단들은 사회봉사 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짜가 진짜같이 살고, 진짜가 가짜같이 살고 있다.

영적전쟁에 있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는 싸움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지피지기백전백승’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파괴된다. 이혼, 가출, 폭행, 지나친 현금 강요, 심지어 살인 등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단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과 치유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가 근본적인 이유겠지만,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부재, 끼리끼리 문화, 체계적이지 못한 성경공부와 이단 교육의 부재 등이다. 필자가 만난 한 자매가 생각한다. 그녀는 모 이단 단체와 정통교회에 함께 적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결국 정통교회로 돌아왔다. 그녀가 상담 끝에 필자에게 한 말이 지금껏 잊히지 않는다.

“이제는 그 단체가 이단임을 확신한다. 그러나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월간 현대종교 02-439-4391~4,
www.hdjongkyo.co.kr
학원복음화협의회(대학가 이단사이비관련)
02-838-9743 www.kcen.or.kr

“월전교회를 도움시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선교선(船) 수리 후원, 교회보수 지원, 아웃리치 실시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주인공은 교회가 없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배를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 화태도 월전교회 문경두 목사다.

대한민국에 사람이 사는 섬은 398개다. 그 섬에 544개의 교회가 있다. 478개 교회는 미자립교회다. 사람이 살고 있지만 교회가 없는 섬도 146개나 된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태도 월전교회 문경두 목사는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섬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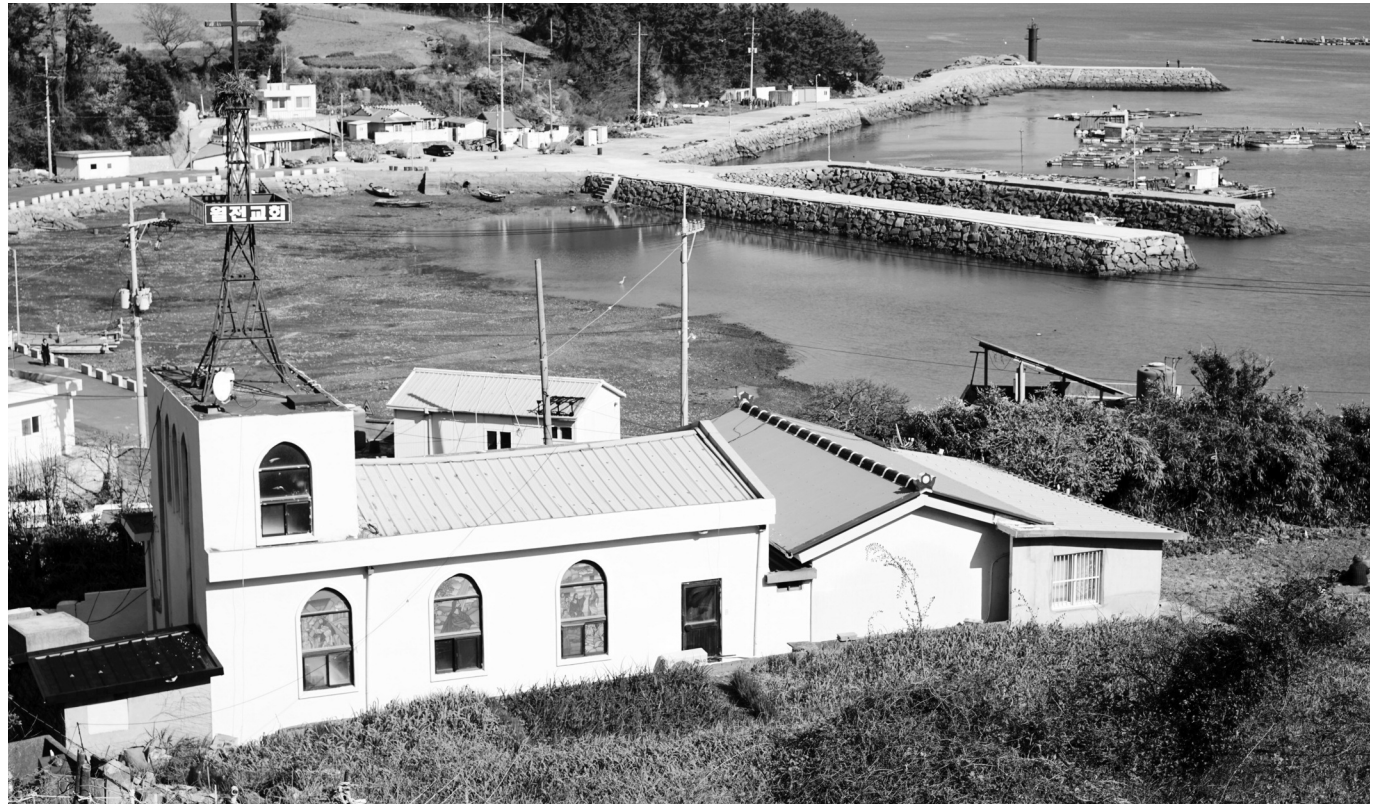
화태도는 전라남도 여수시 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지난해 11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였다. 주변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중간 섬이 되었다.

화태도 남쪽 부둣가 월전리에 월전교회가 있다. 문경두 목사는 이곳에서 25년째 사역하고 있다. 월전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70대를 훌쩍 넘겼다. 전형적인 농어촌 미자립교회다. 화태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나발도, 소두라도, 소항간도, 금죽도 사람들도 섬기고 있다. 교회가 없는 섬을 찾다니며 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선교선 방주8호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나발도부터 50km이상 떨어진 금죽도까지 매주 찾다니는 문 목사가 선장이고 문 목사 사모는 갑판장이다. 그들 부부는 96년부터 20년 동안 1,500번 넘게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집체만 한 파도를 만난 적도, 엔진이 멈춰 표류한 적도 있었다.



문경두 목사와 섬 지역 선교

“아직도 배를 탈 때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섬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배를 탈 이유도 없습니다. 섬에 주민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방주8호를 탈 것입니다.”



화태도 부둣가와 월전교회

섬을 찾아가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성경말씀을 나누는 것이 섬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자식들보다 자주 찾아오고, 안부 물어주고, 예수까지 만나게 해주는 문 목사 부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섬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산 가득 들린 선물이나 찾아오는 사람이다. 문 목사에게는 한 가지 기도제목이 있다. 화태도에서 50km 떨어진 금죽도 너머 섬까지 심방을 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특히 말썽을 부리는 방주8호 엔진이 문제다. 비상 엔진이 없는 방주8호가 항해 중에 멈추면 주변에 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엔진이 한번 고장 나면 수백만 원이나 나오는 수리비를 마련하는 동안 교회가 없는 섬에 심방을 갈 수 없다.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른다. 사실 연료값과 수리비를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딱한 사정을 들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농어촌사역팀에서 매달 10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2004년에는 비전현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때 비전현금으로 방주8호에 새 엔진을 달았다. ‘한국섬선교회’에서도 낡은 배를 세 번이나 바꿔줬다. 후원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향집 가는 마음으로 오세요”

화태도 주민들과 문 목사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91년 세워진 월전교회는 단 한 번도 보수공사를 한 적이 없다. 비가 새고, 천장이 무너지고, 불이 나도 한 옷에 형질을 덧대듯이 보수해왔다. 올 봄에 매주 1만원, 2만원씩 모은 건축현금으로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을 무사히 보내려면 꼭 해야 한다.

봄을 기다리는 이유가 또 있다. 날씨가 추워지고, 눈보라가 치면, 선교선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장도 잦아진다. 이러한 이유로 몇 주씩 방문하지 못 할 때도 있다. 날마다 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날씨가 풀리면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놀이동산에도 갈 생각이다.

“몇 년 전 후원자의 도움으로 용인에 있는 놀이동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생 섬에 살던 어르신들이 놀이동산에서 회전목마를 타고 어찌나 밝게 웃으시던지 그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육지로 떠나거나 소전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늦기 전에 꼭 한 번 놀이동산에 모시고 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가 화태도 월전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선교선 수리 후원, 교회보수 지원도 좋고, 아웃리치면 더 좋겠다. 문 목사와 함께 교회 없는 섬을 다니면서 전도하면 정말 좋겠다.

“어르신들은 이미용봉사와 안마를 무척 좋아하십니다. 손자손녀들 재롱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고향집 가는 마음으로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 섬도 함께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섬 지역 특성에 맞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섬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고다. 단 일회성 봉사만 안 된다. 또한 문 목사가 계속 섬을 다니며 찾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어촌선교팀과 함께

화태도 월전교회를 돕고 싶은 성도나 공동

체는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 연락하면 된다. 서빙고와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이미 화태도 월전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자립교회 수백 곳을 섬기고 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일회적인 도움이 아니라 기도와 물질, 재능기부로 꾸준히 섬기고 있다. 목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목회자들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전이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농어촌선교팀이 있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이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나머지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미자립교회 재정지원, 온누리교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협력사역, 농어촌교회 목회자 초청 및 찾아가는 목회세미나(워크숍), 농어촌 목회자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캠프, 교회 탐방 및 정기 아웃리치(매월 1회 및 여름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동체 및 사역팀의 농어촌 미자립교회 아웃리치 연결도 해준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모임도 매주 이어가고 있다. 매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식당 안에 있는 카우보이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하용조목사 채플관 204호실에서 오후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중보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서빙고 농어촌사역팀에서는 농어촌교회에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 위탁판매하고 있다. 판매수익이 해당교회 헌금보다 많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농어촌 러브소나타 집회를 매년 2회 열고 있다. 군 단위 미자립교회를 위한 전도집회다.

문의 서빙고: 구자엽 총무 010-4286-0078

양재: 임신빈 팀장 010-9085-1677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 40:1)

KIBI, 엘리야(유대인 귀환)운동, 복음 전도 앞장

KIBI(Korea Israel Bible Institute)는 한국·이스라엘 성경연구소다. 창립한지 27년 됐다. 온누리교회와 함께 성장해왔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부름 받은 사역단체다. KIBI는 온누리교회 2000선교부 소속이다.

KIBI는 2천년 동안 교회가 유대인들을 꺾박한 일을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이스라엘 성지순례’, ‘샬롬 예루살렘’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도 하고 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 되고(마24:14), 이스라엘의 회복’(롬11:25)을 위해 알리아(유대인 귀환)운동과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있다. 알리아 운동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고, 복음 전도는 이스라엘 복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적 유산을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KIBI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사명 샬롬예루살렘대회, 중보기도, 성경공부

KIBI는 1989년 2월 시작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모임이 모태다. 1992년 하용조 목사의 권유로 ‘이스라엘 선교부’가 설립됐고, 1994년에 명칭을 ‘KIBI’로 변경했다. 송만석 장로가 대표로 섬기고 있다. 1993년 1차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고, 1999년에는 러시아의 비로비잔(극동유대인 자치주)과 사할린에 라면 5,800박스과 의류 133박스를 후원했다.

2008년 1월부터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GPNK(Global Prayer Network for the Kingdom)’를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샬롬 예루살렘’을 시작했다. 샬롬 예루살렘은 문화 선교와 함께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이다. KIBI는 현재 한국, 미국, 호주, 중국, 이스라엘에 지부를 두고 있다.

KIBI는 유대인 귀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Jewish Agency와 협력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돕고 있다. Jewish Agency는 1929년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 창립된 단체다.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샬롬 예루살렘’ 대회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場)이다. 유대인 2,000명이 모인



사진은 2015년 ‘샬롬 예루살렘’ 대회

다. ‘샬롬 예루살렘’ 대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회개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들을 안아준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공연도 한다. 올해 ‘샬롬 예루살렘 2016’ 대회는 뉴욕과 LA에서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샬롬 예루살렘 2017’ 대회는 예루살렘 현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GPNK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의 부흥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더 자세히 알아가기 위해 IBS(Israel Bible Study) 성경공부도 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번역판도 있어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IBS 성경공부는 7주 과정으로 서빙고와 양재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천, 남양주, 인천 캠퍼스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다.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니 유대인을 지원하는 사역도 한다. 이스라엘 현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니 유대인과 협력해 ‘유대인 금슬사역’을 진행하

고 있다. 무료급식소 운영과 구호품을 지원한다. 한·중·일 연합 사역 ‘PRE(Peoples Raise Up From The East & Network)’도 활발하다. PRE는 한국, 중국, 일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됐다. 세 나라가 연합해 이스라엘 사역을 돕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도 있다.

2017년은 예루살렘 회년이다. 이에 맞춰 샬롬 예루살렘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Jewish Agency와 함께 알리아 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권에서도 이스라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IBS 성경공부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세계선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왜 이스라엘을 선교해야하는가?

고 하용조 목사 설교에 따르면 영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이스라엘과 한국교회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방인들이 자물쇠라면 유대인들은 열쇠다. 자물쇠는 열쇠가 있어야 열린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실까. 아니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선교를 외쳐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은 완성될 수 없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선교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다. 지구는 둥글다. 이스라엘부터 전파된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이스라엘이 선교의 끝이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 예수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이유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다시 국가를 세웠다. 교회가 유대인들을 꺾박한(십자군전쟁, 홀로코스트: 나치에 의한 학살) 역사를 회개하고,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이스라엘 선교의 목적이다. KIBI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 받은 사역단체다.

문의: 02)792-7075~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GPNK 중보기도모임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모임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과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에서 매주 토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한다.

매일 저녁 10시에는 서빙고 자모실에서 기도모임이 진행된다. 금요일에는 저녁 11시에 시작된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17-12105

IBS 성경공부

이스라엘을 배우는 성경공부다. 회년법과 복음,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야, 축복의 근원 이스라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열심, 다시 오시는 왕 예수님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 공부한다.

서빙고 월요일 4월11일~5월16일
목요일 3월17일~4월28일
토요일 3월5일~4월9일

양재 토요일 4월30일~6월11일

[연 혁]

1989년 2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작
1992년 2월 하용조 목사 권유로 온누리교회 이스라엘 선교부 설립
1993년 2월 온누리 교회 제 1차 이스라엘 성지 순례
1999년 4월 비로비잔과, 사할린에 라면 5800박스 지원/ 7월 의류 133박스 지원
2005년 8월 “예루살렘 평화행진 2005” 협력단체로 한국 문화 주간 행사 개최
2007년 10월 KIBI-Australia(오스트레일리아) 설립
2008년 1월 GPNK(Global Prayer Network for the Kingdom) 정식 출범 예배
2009년 3월 홀로코스트 생존자 이스라엘 방문 지원
2010년 1월 제 1회 한국 이스라엘 기도성회(온누리교회)
2013년 8월 샬롬 예루살렘 브록클린 페스티벌 개최(뉴욕)(제 1차)(1,000명)
2014년 6월 샬롬 예루살렘 2014 대회 개최(뉴욕, 워싱턴)(제 2차)(2,000명)
2015년 6월 샬롬 예루살렘 2015 대회 개최(뉴욕, 워싱턴, 뉴저지)(제 3차)(2,000명)



성경체질 그리고 건강 3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체질별로 분석한 연구는 영국의 신학자 알렉산더 화이트가 시작했다. 팀 라하이 목사는 기질론을 보편화시킨 인물이다. 5회에 걸쳐 성경 속 인물들을 기질론으로 풀어낸다.

태음인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까지



류모세 선교사
(경희살롱의원 원장,
열린다성경아카데미 대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출 4:13).

태음인은 마치 열심히 일하는 소와 같다. 하나님을 알려주면 열을 알지는 못해도 알려 준 것만큼은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소화해낸다. 이들은 현실 감각이 뛰어난 반면, 태양기운에서 오는 미래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태음인 중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무미건조한 생활 속에서 막연한 불안감과 우울 증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자녀 교육을 할 때 태양인 아버지와 태음인 아들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술한 충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태양인 아버지는 입만 열면 행동이 굼뜬 태음인 아들을 향해 이렇게 다그칠 것이다.

“이 미련한 녀석아, 어찌 그리 하는 것이 미련하냐? 어디 가서 날 더러 애비라고도 하지 마라!”

그러면 태음인 아들은 자기만의 동굴을 파고 들어가 자폐증이나 우울증에 빠진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무명의 양치기로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선포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사람 잘못 보셔도 한참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빼는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저 순종한 하면 되느니라.”

그러자 모세는 이상한 광계를 대며 또 다시 뒤로 뺐다.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최초로 밝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해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셨다.

이 정도 실랑이가 오갔으면 못 이기는 척 하며 순종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자 수세에 몰린 모세가 폭탄선언을 하고 만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끝까지 버티는 모세와 그런 모세를 어르고 달래서 결국 뜻을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이 잘 묘사되어 있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폭탄 선언이 모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을 것이다.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 마음 없었다. 왜 그럴까. 그들에게 당했던 깊은 상처 때문이다.

애굽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서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진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다. 하지만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 그것도 아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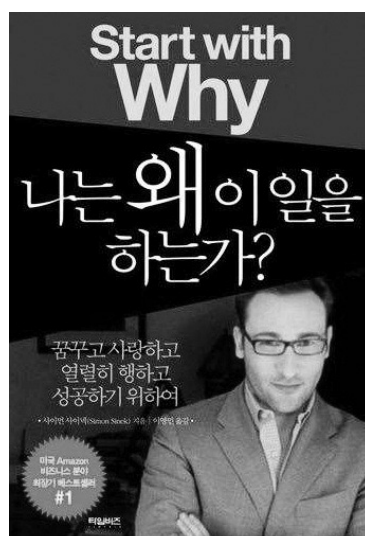
몰차게. 그때 받은 상처가 40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남아있었던 것이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맞서 끝까지 버티는 모세의 딱 막힌 보수성, 완고함과 경직성, 논리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비합리성이 태음인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하지만 괜찮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질적 약점까지도 덮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칭송하는 불세출의 지도자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목회칼럼 유승현 전도사(양재 차세대)

왜(Why)



흔히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방법과 전략을 세운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무엇’과 ‘어떻게’에 집중하는 우리에게 이 책의 저자는 ‘왜

(Why)’에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저자(사이먼 사이네)는 성공한 마케팅 전문가다. 명성을 날리고 성공궤도를 달렸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없었다.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의 내면이 왜 그렇게 공허한지 이유를 찾던 중 ‘골든서클(Golden Circle)’이라는 원리를 발견했다. 골든서클은 개인이나 조직, 혹은 기업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작동원리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공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움직여 성공하게 하는 작동원리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외부의 강요나 압박 없이 열정과 환희로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골든서클이다.

서두에서 언급한 왜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답변이다. 그 답변이 일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골든서클은 원의 중심(Core)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중심에 왜가 있다. 왜에서부터 출발해서 무엇을(What), 어떻게

(How) 순서로 접근한다. 이것이 골든서클이 주장하는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의 순서다.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흔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한다. 그런데 돈을 버는 것은 결과일 뿐이다. 진정한 왜라는 질문은 이유와 목적을 묻는 것이다. 완전적인 원동력을 찾아내는 것이다.

저자는 골든서클을 작동원리와 더불어 소속감을 소개한다. 소속감은 가슴에 생기는 감정이다. 이것은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며, 안정감을 준다. 또한 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을 지녔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팔로워(Follower)에게 유대감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의미를 전달한다. 특별히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표어로 2016년을 맞이한 온누리교

회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때로는 리더가 되고, 때로는 팔로워(Follower)가 된다. 사역할 때 리더는 팔로워(Follower)에게 ‘왜 이 사역을 하는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팔로워(Follower)는 리더가 ‘왜 이 사역을 추진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삶을 돌아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되짚어 보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질문해 보기를 바란다.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흥미나 새로움 없이 반복된 일상이 되기 쉽다. 그때 잠시 멈춰 왜라고 물어보자.



지난해 FA청년들.

대학청년부, FA 10기 참가자 오늘까지 모집

2월 19일 합숙훈련 시작, 8월 16일 사역 종료

대학청년부 여호수아공동체 유재환 형제는 2014년 여름, 청년단기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7기로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다. 그는 국내 합숙 훈련(3주), 현장사역(6개월), 사역보고까지 합쳐 모두 6개월 동안 선교훈련을 받았다. 유재환 형제는 “FA는 가장 젊은 시기에 인생의 십일조를 드리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했다. 지난해 8월에는 FA에서 만난 문예경 자매와 결혼하고, 장기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다.

다. 올해 2월부터 장기선교사 훈련학교(OSOM)에 입학할 예정이다. FA 10기가 오늘(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합숙훈련을 시작한다. 3월 27일 파송예배를 드리고, 3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현장사역에 돌입한다. 파송국가는 네팔과 인도네시아다. 8월 16일 사역이 종료된다. FA 10기에 참가하려면 온누리교회

등록세례교인(6개월 이상)으로 35세 이하(81년생)여야 한다. 후원 및 중보기도로 동참할 수도 있다. FA 중보기도회가 매 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홀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70-4464-8105, favision2000@gmail.com 후원: 하나은행 573-910009-62805(FA무브먼트)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2기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모집

외국어 능통하고, 일대일 제자양육 3회 이상

일대일위원회가 ‘2기 외국어 일대일 사역자’를 2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는 외국인과의 언어의 문제없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할 수 있는 성도를 지칭한다. 2기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훈련은 3월 둘째 주부터 5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된다. 12주 동안 일대일 사역자의 정체성과 자세를 배우고, 16주 동안 일대일 제자양육훈련 실습도 한다. 외국어 일대일사역자 훈련에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참가할 수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3회 이상했거나 일

대일 제자양육을 2회 이상한 성도 중에서 온누리교회에 등록된 지 5년 이상 된 성도도 참가할 수 있다. 해당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해야 한다. 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언어권별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이름, 연락처, 공동체, 생년월일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문의: 영어: 010-2128-1347 일어: 010-3387-4511 중국어: 010-2550-8866 / 김미림 기자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14일까지 접수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14일까지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된 JDS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하면 된다. 예수제자학교는 주간반(서빙고, 양재, 부천)과 저녁반(서빙고, 양재, 수원, 인천)으로 나누어 22주 동안 진행된다. 주간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여성들만 참가할 수 있다.

(부천은 목, 금). 저녁반은 목요일 오후 7시와 토요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남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십자가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수제자학교를 수료하면 임직필수과정 중 2과목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문의: 복인수 간사 02-3215-3533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차세대 FT 6기, 중국과 인도 다녀오다

땅 밟기, 기도훈련 등 단기선교 프로그램 실시

차세대 FT(Frontier Teens)는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단기선교를 경험했다. 차세대 FT 6기가 중국과 인도를 다녀왔다. 중국팀에는 학생 6명, 교역자와 교사 각 1명, 인도팀에는

학생 9명, 교역자와 교사 각 1명이 참가했다. 차세대 FT 정현우 학생은 “FT는 청소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며 “선교지에서 쌓은 경험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차세대 FT들은 3주 동안 선교지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사역한다. 땅 밟기, 기도훈련, 문화사역 등을 한다. 문의: 02-3215-3523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2016년 예수제자학교 일정〉

	캠퍼스	요일	수업 시간	개강	문의
주간반 (여성만 가능)	서빙고	화, 목	10:00~15:00	2월 25일	이명화 010-6295-3474
	양재	화, 목		2월 25일	정선미 010-3772-6780
	부천	목, 금		3월 4일	이정옥 010-5040-3368
	서빙고	목, 토		3월 5일	하한수 010-2081-3368
저녁반 (남,여 모두 가능)	양재	목, 토	목19:00~22:00 토14:30~20:00	2월 27일	김정민 010-2067-2203
	수원	목, 토		3월 5일	이영태 010-5243-0021
	인천	목, 토		3월 5일	김광겸 010-2006-1190

장로합창단 단원 모집

온누리장로합창단 단원을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장로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오디션은 2월 1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에서 진행된다. 자유곡 한 곡을 준비해 오면 된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은 2013년에 결성됐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러브소나타, 농어촌교회 등지에서 공연하고 있다. 문의: 하성기 총무 010-5305-2797 / 김영선 기자

어린이·부모 하트스쿨 참가자 모집

어린이·부모 하트스쿨에서 2월 26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린이 하트스쿨은 미술, 음악, 놀이 등의 매체를 통해 건강한 자아상을 발견하도록 돕고, 부모 하트스쿨은 부모교육, 미술작업과 지원그룹의 나눔을 통해 자녀의 문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하트스쿨은 3월 12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주 토요일에 양재 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시지(010-5415-3879), 홈페이지(www.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어린이 10만원, 부모 5만원(1인 기준)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프랑스어 기초과정 양재 비전홀A

양재 온누리교회 프랑스어배가 진행되는 프랑스어 기초과정 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양재 비전홀A에서 진행되고 있다. 2월 8일에는 휴강한다. 3월에는 프랑스어 기초과정 27가 개강한다. 회비는 2만 원이다. 프랑스어나 불어권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김기정 총무 010-3912-9393

축하합니다 1월 세례자

■서빙고	오성윤 141210	변혜윤 870703	이승연 760711	김민재 950918
유주완 770310	오정민 강승희	심재지 420510	이정준 690721	박소원 911019
허광숙 440127	이예준 140212	유정원 880302	황미경 760306	양유경 911129
이수빈 881012	이태효 이선태	정현택 950529	전영수 730325	
이연정 720111	전하진 141210	▷ 유아		허브
이종태 610721	전남철 안소현	송하윤 140811	■인천	주수빈 940630
장인자 630606	하지원 140329	송진구 남소영	▷ 유아	한예지 941205
최용국 610630	하주성 권영희	윤시은 141224	이건하 131216	이창주 960117
▷ 유아	한예나 140124	윤지성 고윤아	이호준 최무경	김성훈 941121
강상현 140428	한현진 이지은	이사훈 140417	이지율 141219	
강영진 윤지인	황건우 141018	이동수 태지연	이기준 강혜은	Pole2
김예송 140810	황은총 이혜정	이수윤 150628	조경원 140804	김지은 950917
김근영 김미옥	▷ 입교	이성재 이지원	조두희 김현진	이지선 930825
김하원 140424	김동하 930629	임재민 140422	김서원 150106	▷ 입교
김선국 조선희	김현식 971031	임하형 이영주	김신범 방영경	함윤지 941016
노 겹 141121	이해성 930204	▷ 입교		
노재준 이상은		송치원 971012	■대학청년	SNS
민하준 141212	■양재		하늘	이서원 151201
민성원 김영리	강창순 810720	■특별한초대	김나은 940519	이흥규 김수현
서하연 150319	방선주 830725	김태환 621216	김예은 960406	
서범준 정진해	경서봉 790611	배수민 800117	▷ 입교	

■ 외국어 일대일 양육자 간증



/ 이문희 성도(서빙고 찬양공동체)

제자를 낳는 제자

“언니, 영어 일대일 양육자 교육과정이 생긴 다는데 함께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후배가 영어 일대일 양육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 후배의 권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다. 당시 나는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건강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런 내가 답답하셨던지 하나님께서 QT를 통해 나를 한 번 더 부르셨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막 16:2-4).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줬다. 그렇게 나는 외국어 일대일 양육자 훈련과정에 참가했다. 건강한 남녀가 결혼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자녀를 낳는다. 신앙도 하나님을 믿고 일정 시간이 흐르면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육신의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만, 영적인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은 문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제자를 낳는 제자로 부르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만난 동반자는 전문사역자

였다. 그녀에게 내가 도움을 줄 일이 전혀 없어 보였다. 일대일 양육을 시작하자마자 그녀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어려움이였다. 불현듯 일대일 양육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다.

“양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를 만나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양육자가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힘껏 그녀를 섬겼다. 함께 울고, 기도하며 그녀의 옆을 지켰다. 더 깊은 나눔을 위해 다양한 영어성경을 읽었다. 그녀에게 힘이 될 말씀을 찾고 또 찾았다. 두 시간 나눔을 위해 며칠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준비했다. 나눔을 준비하며 말씀으로 풍성해진 내 삶은 은혜가 넘쳤다.

마지막 나눔의 날, 그녀에게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될 것을 진심으로 권면했다. 이미 그녀에게는 아픔을 이기고 날아오를 기쁨의 날개가 움트고 있었다. 그녀는 양육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 그녀와 나는 감격스러운 포옹으로 마지막 나눔을 마쳤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본 행복한 증인이다. 그녀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양재 창조과학선교팀 강사로 섬기며



/ 권은숙 성도(과천의왕공동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2005년 한국창조과학회가 주최한 창조과학스쿨에 참가했다. 그때 이은일 장로님의 강의를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 내가 창조신앙 없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창조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게 됐다.

양재 창조과학선교팀은 2006년에 사역을 시작했다. 양재 창조과학기도모임으로 시작한 사역팀이 벌써 10주년이 됐다. 늘 새롭다는 것이 놀랍다. 양재 창조과학선교팀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해 자원해서 일하고 있다.

나는 3년 전부터 창조과학선교팀 강사로 섬기고 있다. 망가진 부지깽이 같은 나에게 강사로 섬겨줄 수 있겠냐는 제의가 왔을 때 “주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두말 않고 받아들였다.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들 앞에 선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시간과 돈을 들여 모인 분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강사로 순종하면서 깨달은 것이 더 많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2년째 되는 해에는 강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알려 주셨다. 해박한 지식이나 노련한 강의 기술이 아닌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셨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 강의 준비도 미흡했고, 만족스럽지 못한 강의가 부끄러울 때도 많았다. 왜 자주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지 하나님께 여쭙봤다. 환상처럼 강의자료 속 슬라이드 한 장이 보였다. 이교도의 사원으로 바뀐 어느 교회의 사진이었다.

“이것을 보고 애통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 음성을 듣고 많이 울고 회개했다. 껌데기인 나를 주님이 기뻐게 받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강한 교회를 지속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랴도 하겠다고 다짐했다.

창조과학선교팀은 창조과학스쿨과 차세대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잠시 멈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다. 누구든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 1월 유아세례 간증



/ 아이: 한예나, 부: 한현진 모: 이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던 아버지는 온화하고 가정적이었지만 엄격하고 율법적이었다. 사춘기 시절 나는 아버지가 답답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원하지 않아도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했고, 의지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봉사를 하루 종일 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주일은 평일보다 고된 날이었다. 남편은 개척교회 장로님의 아들이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힘들어 했다. 남편과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고민하고, 의지하면서 가깝게 지냈다.

초등학교 시절 금식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찾아온 고난에 무너졌다. 아버지가 갑자기 담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와는 잦은 다툼으로 힘들어 하다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떠났다.

남편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 온누리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대형교회는 주목받지 않아서 좋았다. 편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들어왔고, 은혜도 많이 받았다. 아무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죄하지 않아서 좋았다. 몇 해

를 그렇게 주일예배만 드리다 결혼을 했다.

남편과 나는 어릴 적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틀에서 답답함을 느꼈지만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신앙이 있어서 크게 방황하지 않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습관적이었지만 늘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녀들은 우리보다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바람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교회등록도 하고, 젊은부부학교에도 참가했다. 부모로서의 길과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아마 자녀가 없었다면 이러한 결심도, 행함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자녀들은 우리 부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하다.

자녀들을 통해 우리 부부를 만지시고,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일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올려드린다.

■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제안



/ 마르땡 바보카 목사(프랑스어예배)

아프리카에 필요한 세 가지 교육

불어권 아프리카는 콩고민주공화국, 베냉, 세네갈, 토고 등 24개국이 있다. 그 중 콩고민주공화국은 내전으로 인해 폐쇄되어 있다. 콩고 내전은 1965년부터 32년 동안 독재를 한 정권과 반군의 다툼이 원인이다. 내전은 콩고를 황폐하게 했다. 세계 최악의 전쟁으로 불리고 있다. 복음화 된 아프리카 지역에 들어가 보건, 의료, 교육, 개발 사업을 돕는다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나의 비전은 교육이다. 교육이 발전하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와서 감명 받은 부분이 바로 교육이다. 한국은 교육을 기반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감명 깊었던 부분이 기도와 교육이었다. 한국인들은 전략적으로 기도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산 기도’였다. 외국인인 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매우 새롭고 인상적이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한 한국 기독교의 힘은 교육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에서 차세대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 한국 기독교

의 차세대 교육은 연령에 맞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부재다. 교육이 부족하면 가난해지고, 무지해지고, 환경오염을 범한다. 가난한 아이들을 계몽해 교육시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프리카에 필요한 교육은 세 가지다. 첫째, 농업과 목축업, 축산업, 둘째, 전산 교육, 셋째 신생기업을 세우는 교육이다. 이 세 가지 교육이 다목적 산업을 양성시킬 수 있다. 아프리카를 위한 다목적 학교를 세워 세 가지 기술 교육을 한다면 미래의 아프리카는 놀랍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코트디부아르와 토고로 돌아가 차세대와 신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남아프리카에도 관심이 많다. 남아프리카에는 프랑스어를 쓰는 이들이 종종 있다. 그들을 교육시켜 교회개혁과 현지 신학교 사역을 하고 싶다. 아프리카 차세대를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



권사칼럼 권명자 권사

나는 빵 굽는 권사

작년 고난주간 십아예배에 재한몽골학교 유해근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한 적이 있었다. 나는 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불현듯 15년 전 일이 생각났다. 여성다락방장 직분을 감당하던 시절 유해근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났다. 나는 2004년에 권사가 되었지만 교회 리더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교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장소를 찾고 있었다. 그날 나는 재한몽골학교를 섬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유해근 목사님과 어떤 것을 섬겨야하는지 상의하면서 껌짜눌랐다. 나는 ‘학생들 배식 정도 섬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의 생각은 달랐다. 목사님은 내가 몽골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구워주시기를 원하셨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아이들 200명을 위한 빵을 만드는 비용이 40~50만 원 가량이 드는데 한 달에 한 번 후원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취미로 제빵을 배웠고, 빵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좋아한다. 빵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시는 유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

한 달에 한번이면 무리도 되지 않고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빵 만드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이 됐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다. 빵 만드는 봉사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안정맞춤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29일부터 몽골학교 학생들을 위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갈수록 일이 커져만

갔다.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한 주에도 몇 차례씩 빵을 구웠다. 몽골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유해근 목사님이 섬기는 나섬공동체(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단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빵을 구웠다. 재료비 마련을 위한 바자회에서도 빵을 구워 판매했다. 전기세가 걱정되었는데 곧 해결되었다. 태양열 발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절반은 한전에서, 나머지 절반은 온누리교회 비전현금으로 채워졌다. 할렐루야!

이왕 시작한 것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베들레헴 스토리’라는 로고까지 만들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요 6:33)는 말씀을 붙잡았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몽골학교에서 빵을 구웠다. 이 사역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 덕분이다. 빵 만드는 기술을 가진 봉사자들이 멀리서 오셔서 섬겨줬다. 차비도 받지 않고 도와줬다. 한 청년은 흔쾌히 로고를 만들어줬다. 어떤 권사님은 처음 6개월 동안 모든 재료비를 후원해주셨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헌금을 해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이야말로 소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이제 곧 몽골학교의 겨울방학이 끝난다. 방과 후 활동으로 제빵수업을 다시 열어야 한다. 제과제빵 수업에 재능기부할 봉사자들을 찾고 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빵과 과자를 구워주고 싶다.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몽골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

문의: 010-5879-5200

후원: 신한은행, 100-029-504431(재한몽골학교)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한영훈(월드프렌즈 KOICA자문단)

몽골은 나의 스승

어느새 14년이 흘렀다. 2001년 5월 25일 임신 7개월의 아내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첫발을 내딛었다. 더없이 화창하고 쾌적한 날이었다. 한국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다른 하늘이었다.

몽골은 역사가 살아있는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우랄알타이산맥과 고비사막을 품고, 흉노, 선비, 돌궐 등 수많은 민족들의 문명과 문명이 이어지는 유목민들의 고향이다.

몽골의 유목민들은 장성한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먼 곳으로 보내 독립하게 한다. 그들에게 토지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적의가 없다면 누구와도 타협할 줄 알고, 결코 먼저 신의를 깨트리지 않는다. 몽골의 자연환경은 냉혹하고, 잔인하다. 춥고, 척박하고, 건조한 환경이 이곳 사람들에게 유연한 삶의 철학을 가르치고, 또한 준비시키는 훈련의 장이 되어 왔다.

2001년 7월 적응기간과 언어훈련을 마치고 몽골 입국동기인 외과 박 선생과 몽골연세전선병원에서 진료준비를 하면서 기대에 부풀어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몽골인 원장이 병원의 모든 직원들에게 2주간의 휴가를 주고 병원 문을 닫아버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7월 중순이 지나서야 첫 진료를 할 수 있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고역이었다. 몽골어가 서툴러 도우미

학생이 없을 때면 환자들과 소통하느라 혼쫓이 났다.

9월 중순에 첫눈이 내렸다. 한번 내린 눈은 녹지 않았다. 세상이 하얗게 덮힌 듯했다. 동지가 지나면서 몽골에 진정한 겨울이 시작되었다. 영하30도의 매서운 추위가 몰려왔다. 그 추운 날이 9일씩 9번 지나야 겨울이 끝난다고 했다. 영하의 날씨와 언 땅은 5월이 돼서야 겨우 녹았다. 끔찍한 추위와 긴 겨울에도 진료실에서 만난 유목민들은 결코 쉬지 않았다. 추울수록 더 열심히 일했다.

5월 중순이 되었다. 곳곳에서 푸르른 나무와 풀들이 여름을 빚어내고 있었다. 집과 병원 모두 진한 초록으로 빛났다. 몽골의 여름은 추위와 맞서 싸워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당연한 격려와 위로의 선물이다.

나는 14년 동안 몽골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그들의 상처를 치료했다. 몽골에 내시경부비동수술을 소개했고, 수많은 재건수술과 청각수술도 시행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내게 진료를 받았다. 몽골 사람들은 내게 고맙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고맙다. 그들은 내 스승이다. 몽골은 신의 섭리를 배우는 현상이었고, 순종하는 삶의 훈련소였다. 공감할 줄 모르고 자기애가 강했던 한 젊은 의사가 금술을 배웠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나눌 줄 알게 되었다.



신앙에세이 이정환 목사(분당B공동체)

힘겹게 VS 힘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정리해야 하는 4가지 있다. 첫째, 사람과의 관계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갈 때 힘을 받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막히거나 꼬여있으면 힘을 잃게 된다.

둘째, 금전적인 관계다. 금전적인 관계는 단순히 채무관계 이상으로 그 사람의 현재 인격과 신용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금전적인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용은 자동적으로 높아진다.

셋째, 공간을 잘 정리해야 한다. 사람은 거룩하고 성결함을 추구하려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활력을 되찾는다.

넷째, 마음정리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정리해야 한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다. 정리되지 않는 마음은 복잡하고 지저분하다. 우리 삶을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렘 17:9)이라고 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울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도, 즐겁고 활력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인생은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고 싶다.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간관계, 금전관계, 공간을 아무리 잘 정리해도 마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한해를 힘 있게 출발할 수 없다. 한해를 힘 있게 시작하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우리의 마음은 복잡하고 정리가 필요한 것일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험하고, 모진 세월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먼지와 찌꺼기가 수북이 쌓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생겼다. 어릴 적 엄마가 방을 청소해주지 않으면 금세 지저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청소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지저분한 쓰레기장이 된다. 하수구에 찌꺼기가 끼어 있으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먼지와 찌꺼기가 가득 있으면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지 못한다. 아니 멈추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 바울은 마음을 잘 정리하는 영적원리를 이렇게 소개했다. “곧 뒤에 있는 것

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내려서 좇아갑니다”(빌 3:13-14).

마음을 잘 정리하려면 과거를 잊어야 한다. 과거의 영광과 환희, 실패와 상처를 모두 잊을 때 마음이 잘 정리된다. 과거의 성공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과거의 실패는 열등하게 만든다. 마음을 복잡하고 어지럽게 한다. 좋은 과거도, 나쁜 과거도 모두 잊는 것이 새해를 가볍게 출발하는 방법이다. 과거와 이별해야 희망찬 한 해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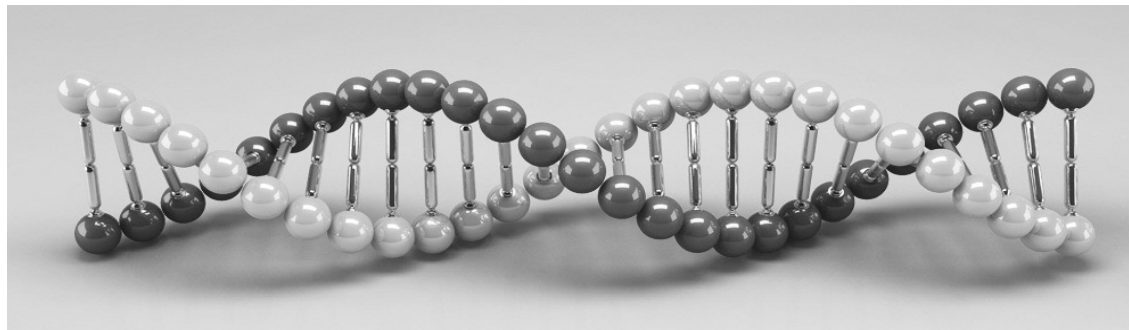
마음을 잘 정리하려면 쫓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리된다. 한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된다. 아무렇게나 줄을 서지 않고, 기준을 잡으면 곧은 줄이 되는 것처럼 절대기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뚤어진 마음이 바로잡힌다.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때 마음이 잘 정리된다. 2016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새해를 힘겹게 출발하고 있는가? 힘차게 출발하고 있는가?

궁금한 창조과학이야기 11. DNA



하주현 교수
(한국창조과학회 교육원장, 경희대 교수)

DNA는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



1912년 4월 15일 0시 5분 다급한 구조신호가 울렸다. 구조신호를 수신한 카르파티아호는 전속력으로 90km 떨어진 지점으로 향했다. 약 4시간만인 3시 55분경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미 1,513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뒤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서 711명만 가까스로 구조할 수 있었다. 당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영하 2도 바닷물에 뛰어들었을 때 수천 개의 날카로운 칼이 온 몸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1912년 4월 10일 뉴욕을 향해 출항한 당시 최고의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4월 14일 23시 40분 빙산과 충돌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는 4월 15일 0시 5분에 조난 신호를 보냈다. 타이타닉호는 충돌한 지 2시간 40분만인 4월 15일 2시 20분에 침몰했다.

타이타닉호에서 보낸 조난신호는 모스 부호(Morse Code)로 이루어졌다. 모스 부호는 문자 정보를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의 조합으로 전송하는 무선통신이다. 1906년 이 조합 중 가장 간단명료한 조합인 S(· · ·)와 O(—)를 조난신호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타이타닉호가 최초로 SOS를 사용했다.

만약에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없었다면 구조신호는 무의

미한 잡음이었을 것이고, 711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된 점자에도 철저한 규칙이 있다. 그래야만 정보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도 규칙에 따라 정보를 획득한다. 정보는 아무런 규칙이나 방향성 없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약속된 규칙이 존재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정보를 보내고 받는 시스템이 존재해야 한다.

생명체의 모든 정보는 DNA에 담겨 있다. 모든 생명체는 DNA에 들어있는 규칙을 따라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 정보가 살아 되고, 피가 된다. 이 정보에 의해 자녀들이 부모를 닮게 된다. 과연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 지난 50여 년 동안 자연과학자들은 DNA에 숨겨진 규칙을 알기 위해 수많은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얻는 결론은 DNA가 생명현상을 만드는 규칙이 너무나 복잡하고 신기하다는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DNA 정보의 본질을 전부 알 수 없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DNA가 우연히 정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보는 물질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에 정보가 심겨진 것이다. 누가 DNA를 활용해 정보를 심었고, 이 방대한 정보량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유전정보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DNA를 볼 때마다 정보를 창조하시고, 시스템을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겸손해질 뿐이다.



책

신간

“하나님 덕분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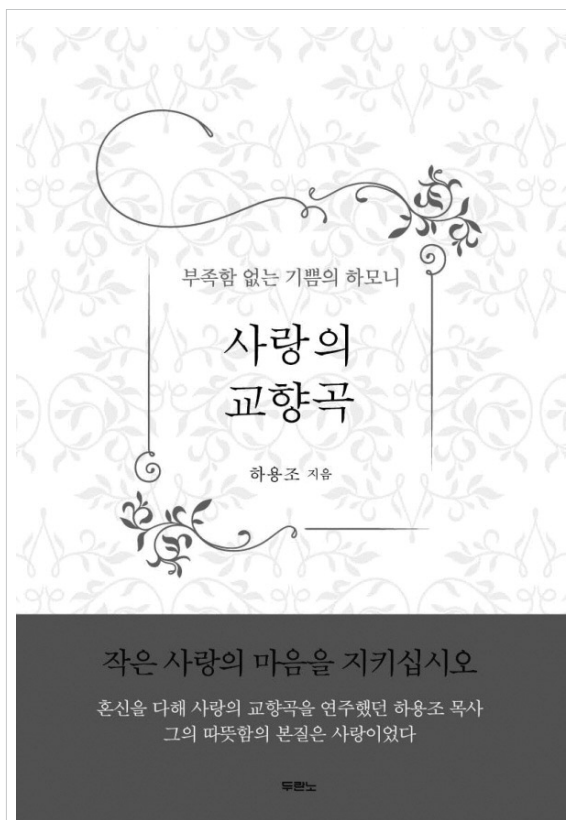
〈사랑의 교향곡〉

하용조 저 | 두란노 | 12,000원

이 책은 하용조 목사 설교집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설교한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교향곡’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에 대한 15가지 정의가 정리되어 있다. 하용조 목사는 따뜻하면서도 정중한 어조로 사랑의 실체와 특성을 이야기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기준과 방향도 제시했다. 완전한 사랑, 성숙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하용조 목사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피어난다고 했다.

“사랑이란 마음이 넓고, 위대하고, 성자 같은 사람들만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 많고, 부족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넓지 않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심성이 흉흉하지도 않고, 신경질도 잘 내고, 울다가 웃다가 변덕 부리는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덕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힘입니다.”



〈내 영혼의 거룩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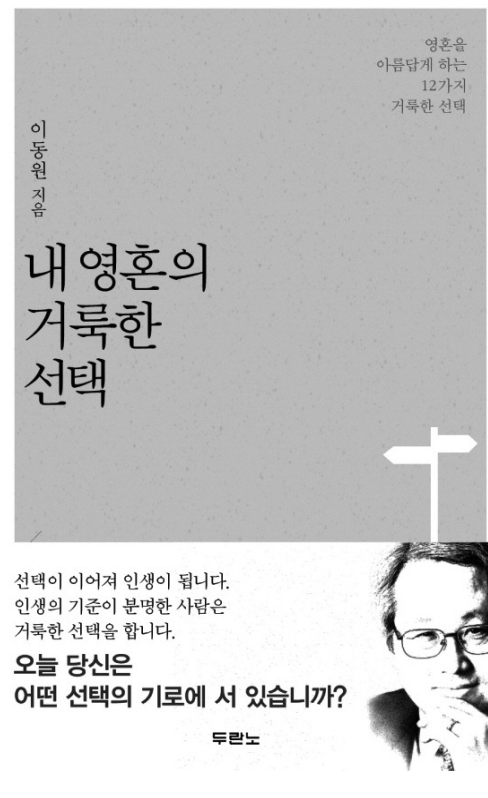
이동원 저 | 두란노 |

11,000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옳다고 생각했던 선택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 뜻밖의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12가지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 이 책의 저자 이동원 목사는 선택하기 전에 작고, 초라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주를 붙들라고 권면한다.

〈내 영혼의 거룩한 선택〉은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진로,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 크리스천으로서 구분된 삶을 선택한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2016 온누리교회 찬양팀원 모집

서빙고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6:50	주찬양	주일 오전 5:20-6:30 수요일 오후 7:00	시간 : 1월 31일(주일) 오전 8:30 2월 14일(주일) 오전 8:30 장소 : 지하 1층 성가대실(식당 맞은편) 곡목 : 찬송가 중 자유곡 1곡 자격 : 등록교인, 세례교인, 공동체소속	노혁준 총무 010-8736-7311
	챔버	주일 오전 6:00 성가대 연습실	시간 : 2월 7일(주일 예배 후) - 오디션 및 면접 모집 : 바이올린, 첼로, 베이스 조건 : 전공자	손수영 팀장 010-3124-2970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6:00 지하연습실	싱어 : 여자 1명/ 남자 1명	서정숙팀장 010-8213-7455
2부 09:00	주사랑	주일 오전 7:20-8:40 목요일 오후 7:30-9:30	곡목 : 자유곡 1곡 및 면접(악보지침) 시간, 장소 : 2월 4일 저녁 7:00 성가대실 2월 7일 오전 10:30 B101호 2월 11일 저녁 7:00 성가대실 세개의 날짜 중 원하는 시간 선택	박찬민 총무 010-6397-3503
	챔버	주일 오전 8:00	면접 : 2월 7일 주일 오전 10:30 모집 : 바이올린, 바이올라 조건 : 전공자	이철호 팀장 010-2942-7399
3부 11:30	주향한	주일 오전 10:00-11:15 화요일 오후 7:00-9:30	시간 : 2월 14일 3부 예배 후 Act29홀 곡목 : 자유곡 1곡(악보 2부 필참) 악보가 없으면 오디션 불가 면접 : 오디션과 병행 기타 : 1. 화요일 연습 결석 시 그 주일예배 섬김 불가 2. 2회 수련회 및 아웃리치(해외포함) 를 1회 이상 참석 가능 하여야 함	이범규 총무 010-3866-8633
	챔버	주일 오전 9:30 기도모임 주일 오전 10:00 연습	모집 : 바이올린, 바이올라, 첼로 오디션 및 면접 : 2월 7일 오전 9:40 장소 : B102호 조건 : 전공자	하웅주 팀장 010-8818-7798
4부 13:50	온누리위십 콰이어	주일 오전 11:30-1:00 주일 오후 3:30 수요일 오후 8:00	장소 : 성가대 연습실 시간 : 2월 14일 주일 4부 예배 후 오후 4:00 곡목 : 여 - 부르신 곳에서 남 -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이승연 총무 010-5350-2872
5부 십자가의길 16:00	예배인도팀	주일 오후 2:20 지하연습실	장소 : 지하연습실 시간 : 2월 첫 주일 오후 2:00 모집 : 싱어 1명	오정은 팀장 010-3336-9687
6부 특별한초대 19:00	찬양사역팀 (콰이어)	금요일 오후 8:00 주일 오후 4:00	문의번호로 문의 개별 연락 자유곡 1곡, 지정곡 1곡, 면접	김승진 팀장 010-4216-3633
새벽1부 05:00	예배인도팀	매일 오전 4:35 격주 토요일 오전 6:30	오디션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지	이정희 팀장 010-3338-9232
새벽2부 06:20	예배인도팀	매일 오전 6:00	오디션 일정과 장소는 추후 공지	김효정 팀장 010-5123-6717

양재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6:50	챔버	주일 오전 6:00	모집 : 바이올린, 바이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정다은 팀장 010-5100-3580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6:00	모집 : 싱어 곡목 : 자유곡 2곡(위십곡1, 찬송가) 및 면접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임혜인 팀장 010-4130-2872
2부 09:00	주의빛	주일 오전 7:30 목요일 오후 7:30	시간 : 1월 31일, 2월 7일 2부 예배 후 장소 : 두란노홀 곡목 : 자유곡 1곡(악보지침) 및 면접 모집 : 바이올린, 바이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서요셉 총무 010-2815-0472
	챔버	주일 오전 8:00	모집 : 바이올린, 바이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김진영 팀장 010-8777-9284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8:00	모집 : 싱어 곡목 : 자유곡 2곡(위십곡1, 찬송가) 및 면접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임혜인 팀장 010-4130-2872
도곡 09:00	주경배	주일 오전 7:00 주일 오후 10:40 목요일 오후 17:30	시간 : 2월 7일 예배 후 장소 : 도곡교육관 곡목 : 자유곡(악보지침) 및 면접	이창수 총무 010-6253-2838
	챔버	주일 오전 8:00	모집 : 바이올린, 바이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최연수 팀장 010-3714-6922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8:00	모집 : 싱어 곡목 : 자유곡 2곡(위십곡1, 찬송가) 및 면접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한영철 전도사 010-2041-7224
3부 11:30	뮤지컬찬양	주일 오전 10:00 주일 오후 2:00 월요일 오후 7:30	시간 : 1월 31일, 3부 예배 후 장소 : 비전홀B (식당 옆) 곡목 : 자유곡 1곡(악보지침) 및 면접	탁영웅 총무 010-6389-3424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10:00	모집 : 싱어 곡목 : 자유곡 2곡(위십곡1, 찬송가) 및 면접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임혜인 팀장 010-4130-2872
4부 13:50	주기쁨	주일 오후 12:00 주일 오후 3:30	시간 : 1월 31일, 4부 예배 후 장소 : 두란노홀 곡목 : 찬송가 1곡(악보지침) 및 면접	박지현 총무 010-9896-3654
	챔버	주일 오후 1:15	모집 : 바이올린, 바이올라,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더블베이스 등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박지화 팀장 010-4786-3004
	예배인도팀	주일 오후 12:00	모집 : 싱어 곡목 : 자유곡 2곡(위십곡1, 찬송가) 및 면접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임혜인 팀장 010-4130-2872
6부 특별한초대 19:00	블레싱 콰이어	주일 오후 4:00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이준 팀장 010-2712-2378
7부 21:00	햇살남성	월요일 오후 8:00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박강주 총무 010-4588-5868
	Joy N joy	토요일 오전 10:00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개별 연락 드립니다.	이영미 총무 010-4140-5309

부천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2부 09:00	주은길	주일 오전 7:40 주일 오후 11:00	수시 모집(곡목 : 자유곡) 장소 : 지하 1층 시온홀	장석철 총무 010-8722-4256
	주효임	주일 오전 9:30 주일 오후 1:40	수시 모집(곡목 : 자유곡) 장소 : 지하 1층 시온홀	장진경 총무 010-9154-0618
1부 07:00	챔버	주일 오전 6:30	수시 모집(곡목 : 자유곡) 장소 : 본당	정요찬 간사 010-2402-3043
1부 07:00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6:30	수시 모집 (곡목 : 자유곡) 오디션 일정 : 개별 통보 모집 : 싱어	정요찬 간사 010-2402-3043
2부 09:00		주일 오전 8:00		
3부 11:30		주일 오전 10:00		
4부 14:00		주일 오후 1:00		
6부 18:00		주일 오후 5:00		

인천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9:00	주은혜	주일 오전 7:30-8:40 주일 오전 11:00-오후 1:00	면접은 개별연락드립니다.	윤경호 팀장 010-5318-9418
	챔버	주일 오전 7:30-8:40	모집 : 바이올린, 첼로	이종현 전도사 010-5717-4298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8:20-8:50	모집 : 세간간반, 싱어 6명, 면접은 개별연락드립니다.	김성곤 팀장 010-3949-0323
2부 11:20	주능력	주일 오전 9:45-11:00 주일 오후 1:30-3:00	면접은 개별 연락 드립니다.	이종현 전도사 010-5717-4298
	챔버	주일 오전 9:50-11:00	모집 :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플루트	
예배인도팀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10:30	모집 : 메인간반, 싱어 6명, 면접은 개별연락드립니다.	
3부 14:00	예배인도팀	주일 오후 1:00	모집 : 퍼커션, 싱어 6명, 면접은 개별연락드립니다.	

수원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7:00	주순중	주일 오전 6:00-6:50 주일 오전 9:00-10:00	오디션 없음, 면접은 개별연락드립니다.	라문갑 총무 010-6322-9924
	주드림	주일 오전 7:30-8:30 주일 오전 10:40-12:00		강봉석 총무 010-4631-7507
2부 09:00	싱어팀	주일 오전 8:00		김태신 팀장 010-2593-9215
	챔버팀	주일 오전 7:30-8:30 주일 오전 10:40-12:00		김종대 팀장 010-6418-7646
3부 11:30	주함께	주일 오전 10:00-11:00 주일 오후 2:00-3:00		김현철 총무 010-4629-0095
	주영광	주일 오후 12:30-2:00 주일 오후 4:00-5:20		남기웅 총무 010-8895-4696
4부 14:00	예배인도팀	주일 오후 1:00 주일 오후 3:30-4:30	자막, 영상 스위처, 카메라(사진), FD 모집	최현웅 전도사 010-4916-1712
1-4부예배	예배진행팀	각 부 예배 섬김		이경민 간사 010-2123-3730
수요예배 19:40	수요온누리 위십 예배진행팀	수요일 저녁 6:00		최현웅 전도사 010-4916-1712
위십맨스팀	마하나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권소영 팀장 010-4709-2115
여성총창팀	예향	매주 수요일 오후 1:30		홍윤수 팀장 010-8757-2403

대전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9:00	주사랑	주일 오전 07:40-8:40 주일 오전 11:00-12:30	모집인원 : 00명 오디션 없음	구재환 성도 010-2400-7444
	챔버	주일 오전 07:40-08:40	모집 : 관현악기 일체 오디션 : 개별연락드립니다.	김수연 성도 010-9406-2483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08:15-8:40	모집인원 : 일렉1, 싱어2명	홍석구 성도 010-5513-2227
2부 11:30	주영광	주일 오전 09:00-11:00	모집인원 : 00명 오디션 : 개별연락드립니다.	윤해명 전사 010-3410-0413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10:30-11:00	모집 : 일렉 1, 싱어 2명 오디션 : 개별 연락 드립니다.	홍석구 성도 010-5513-2227
	예배진행팀	자막 봉사		최성훈 간사 010-5136-8135
3부 14:00	예배인도팀	주일 오후 1:10-1:50	모집 : 싱어 3명 오디션 : 개별 연락 드립니다.	김관수 목사 010-8818-2485
	예배진행팀	자막봉사		최성훈 간사 010-5136-8135

남양주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9:00	주찬양	주일 오전 8:00-8:45 주일 오전 11:00-12:40	장소 : 5층 소망홀 모집 : 각 파트별 00명	장재서 서기 010-9293-6778
	주영광	주일 오전 9:00-11:00	장소 : 5층 소망홀 모집 : 소프라노, 챔버(챔버는 오디션 진행)	박원 총무 010-8240-8681
2부 11:30	주영광	주일 오전 9:00-11:00	장소 : 5층 소망홀 모집 : 소프라노, 챔버(챔버는 오디션 진행)	챔버오디션문의 최재영 성가사 010-9620-4520
1부 09:00	예배인도팀	격주 토요일 오전8:00-9:00	장소 : 본당 모집분야 : 싱어, 베이스, 드럼	양지연 팀장 010-3349-2264
2부 11:30		격주 토요일 오전8:00-9:00	장소 : 본당 모집분야 : 싱어, 건반, 어쿠스틱 기타, 드럼	최영진 팀장 010-7576-7799
3부 14:00		매주 토요일 오후 2:00	장소 : 본당 모집 : 드럼, 일렉, 베이스, 싱어, 엔지니어	김진화 팀장 010-7179-5094

평택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2부 11:30	주향기	주일 오후 1:30-3:00	오디션 있음(오후 2:00-3:00) 곡명 : 자유곡	조정훈 성가사 010-7365-9779
1부 09:00	예배인도팀 챔버	주일 오전 08:30-09:00	개별면접과 오디션	이종민 전도사 010-5600-0926
2부 11:30	예배인도팀 챔버	주일 오전 11:00-11:30		
3부 14:00	예배인도팀 챔버	주일 오후 1:00-2:00		
수요예배 19:30	예배인도팀 챔버	수요일 오후 7:00-7:30		
화요일예배 10:30	예배인도팀 챔버	화요일 오전 09:30-10:30		
새벽기도 05:30	예배진행팀	자막	개별교육	

강동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1부 09:00	주찬양	주일 오전 7:30-08:30 주일 오전 10:30-12:00	오디션 없음	윤석은 팀장 010-3321-7296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8:30	모집 : 싱어, 오디션 일정 : 개별통보	서수민 전도사 010-7442-1620
	예배진행팀	자막, 음향, 카메라, 스위처, FD 모집		조중희 간사 010-8718-5900
2부 11:30	주기쁨	주일 오전 9:00-10:30 주일 오후 1:10-2:30	오디션 없음	이주현 팀장 010-3759-6466
	챔버	주일 오전 10:30	오디션 없음, 모집 대상 : 관현악기 전공자	성종원 목사 010-4626-0231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10:50	모집 : 싱어, 오디션 일정 : 개별통보	이진우 팀장 010-5173-2446
3부 14:00	프라이스 콰이어	주일 오후 12:00-1:00 금요일 저녁 8:00-11:00 악기 주일 오전 9:40-11:00 싱어 토요일 오후	오디션 없음	서수민 전도사 010-7442-1620
	예배인도팀	예배진행팀	자막, 카메라, 스위처, FD 모집	조지은 팀장 010-3298-7934
	예배인도팀	해당 요일 오전 6:00	모집 : 싱어(주 1회 이상)	석승호 목사 010-4199-6951
새벽 06:20	예배진행팀	자막 (주 1회 이상)		석승호 목사 010-4199-6951
수요저녁예배	예배진행팀	음향, 자막		조중희 간사 010-8718-5900
수요오전예배	예배진행팀	자막		

양지

예배	이름	연습시간	오디션 (공통: 온누리교회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담당자
2부 11:30	마라나타	주일 오전 9:00-11:00 주일 오후 1:30-3:00	면접은 개별 연락 드립니다.	박용식 전사 010-6561-5061
1부 09:00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08:30	시간 : 2월 14일, 21일 오후 1:30 장소 : 언더우드홀(2층)	제치윤 선교사 010-4046-7601
2부 11:30	예배인도팀	주일 오전 10:30	곡목 : 자유곡2곡(위십곡1곡, 찬송가1곡)	이강현 전도사 010-9390-2897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분당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010-3301-2897)

장애후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8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I, 4층

다문화꿈방예배 11:00 안산M센터II, 3층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다문화과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공자정 집사(010-5101-461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30~3: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문의: 이재선 팀장(010-4753-3150)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서튼은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10:30~12:30

-서튼은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주일 5부 예배 자막봉사자 모집

문의: 박이호 전도사(010-8581-6481)

설연휴 일대일 데스크 운영공지

*2월7일 새가족 5주차 및 일대일안내데

스크 정상운영(일대일나눔방은 휴무)

의료선교부 방사전사 모집

사역일정: 매 주일

모집인원: 0명

문의: 오천병 간사(02-3215-3786,

och86@onnuri.org)

2016 살롬 예루살렘 대회

살롬 예루살렘 대회 참가 일정

6월 18일(토) ~ 6월 26일(일)

살롬 예루살렘 대회, 그랜드 캐년 일정

6월 18일(토) ~ 6월 29일(수)

문의: 카비사부실(02-792-7076)

* 자세한 비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키비(KIBI)사무실 이전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52, 211호

(용산동 6가, 신동아 쇼핑)

문의: 02-792-7075~6

온누리 전도학교 14기 훈련생 모집

기간: 3월 20일~5월 22일(주일)

시간: 매주일 8:50~10:10

신청: i-school홈페이지 또는

주일 통합데스크

장소: 서빙고 홍보관

회비: 4만원

문의: 문성찬 팀장(010-4572-7373)

2016년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일시: 3월 9일~5월 4일, 매주 수

12:40~16:30

장소: 온누리교회 서빙고 비전홀

접수: ischool접수, 주일 서빙고 분관 로

비 통합데스크 접수

등록비: 7만원

대상: 남녀 세례교인 누구나

강사: 호스피스 전문교수 16인(17과목)

문의: 장은숙 팀장 010-3715-1652

한국창조과학회 간사 모집

모집부분: 교육 및 행정 담당 1명

제출서류: 이력서,신앙고백서(자기소개서)

문의: 한국창조과학회본부(02-419-

6465)

제출: acc@creation.kr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홀(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어린이(초등)/부모 하트 스쿨 모집

기간: 3월 12일(토) ~ 6월 14일(토)

시간: 매주 토요일 15시~18시

장소: 양재 JDS홀, 충성홀

인원: 30가정

문의: 이현대 전도사(010-5415-3879)

2000선교 프랑스어 겨울 특강

(기초과정)

일시: 2월 29일까지(매주 월,

저녁 7:30 / 구정연휴 주일 휴강)

장소: 양재 비전홀A

회비: 2만원

성경 공부, 이 한 채널이면



성경을 더욱 깊이 배우고 싶으신가요?

성경을 이제 막 알아가고 있으신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 열려있는 채널
유튜브 CGNTV 바이블 스터디

시청 방법

YouTube App에서 'CGNTV 바이블 스터디' 채널 검색

주요 프로그램

나침반 바이블, 성경탐구 40일, 한눈에 빠져드는 성경읽기
김윤희 교수의 구약특강 '하박국', 김세운 박사의 칭의와 성화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시리즈

CGNTV 기획세미나

최은영 교수의

성장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부모들에게
탁월한 성경적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일시

2월 15일 (월) 10:30 ~ 17:00
2월 16일 (화) 10:30 ~ 12:20
2월 19일 (금) 10:30 ~ 17:00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5층
CGNTV 스튜디오

회비

무료 (사전등록 필수)

등록

mungsil1@naver.com
(이름, 핸드폰번호, 참석 날짜 기입)

문의

02-3275-9402

Tv 프로그램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2/1(월) 오전 11시 김평일 교장
가나안농군학교 '가나안농군학교 이야기'
-2/2(화) 오전 11시 김현일 대표
나들목 바하바집 '바하바집 - 나의 수도원'



▷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2/2(화) 오전 11시 30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양육과 제자훈련을
책임지고 있는 '북방선교방송(TWR)'의 성훈
경 목사, 조영민 간사를 통해 대북방송선교의
현황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 신학자들의 이슈&토크
-2/4(목) 오후 4시 50분
동성애, 무슬림, 혼전동거, 성화, 교파 등 시대적
이슈에 관한 목회자들의 열린 토론입니다(패널 :
존 파이퍼, 데이비드 플랫, 매트 찬들러, 케빈
드영, 존 맥아더, 마크 데버 등).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 간 | 편 | 성 | 표

1/31(주일)	2/1(월)	2/2(화)	2/3(수)	2/4(목)	2/5(금)	2/6(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상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항기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마가복음강해 <나침반> 11:0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16:50 전선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말씀치유집회 23:50 페리 노블의 결혼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민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손기철 장로의 다시복음함에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15:30 2015 추양재단 목회강좌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2015 홈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랫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항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16:50 신학자들의 이슈&토크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새번블레싱 11:00 나침반 바이블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N2) 15:30 이기복 교수의 성경속 자녀코칭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추양재단 목회강좌 21:00 [드라마] 폴리캅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안 파트릭의 사도행전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나침반 바이블 16:30 이계호 교수의 태초먹거리 19:00 2015 추양재단 목회강좌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북소리 22:00 2016 리더십 수련회 The One 주제강의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